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 주었으면..."
A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모든 생명에 대해 한없는 연민을 가져라
그리하여 자비심이 곧고루 스미게 하라.
모든 행위에서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2일) · 주간

제990호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세월호 희생자 왕생극락 발원합니다" 올해 연등회는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과 함께 애통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4월 26일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석가모니 정근 속에서 하얀 연등과 만장의 행렬이 이어졌고, 시민과 불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왕생극락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박재환 기자

종정 진제 스님 진도 방문

현장서 실종자 귀환 기원... 유시 발표도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4월 19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팽목항을 찾아 현장을 위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제 스님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현장에서 진제 스님은 반야심경 봉독 후 수차례 "실종자들이 무사히 귀환하길 바란다"고 간절한 어조로 밝혔다.

이후 진제 스님은 자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현지 사찰 부스를 찾아 활동가들을 격려했으며,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방문 직후 종단 전체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유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장에 급파된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는 4월 21일 진도 군실내체육관 부스에 법당을 조성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

했다. 태고종 총무원도 4월 19일 팽목항에 이동식 천막 법당을 조성하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철야 기도에 들어갔다.

진각종도 4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심인당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강도불사'를 불행하기도 했다.

조계종 · 태고종 등

팽목항 임시법당 설치

세계 불교계도 애도문

세계불교계의 희생자 추모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불교협회와 일한불교교류협회는 4월 19, 23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에게 깊은 위안을 보내드리며,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A2, 3, 31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4월 19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현지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2014년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 60면 발행

A 종합 · 불자들 · 지역	2·4·5
함께 나누는 세월호의 아픔	3
특집 · 통일로 가는 길	12·13·14·15
종단 · 단체 봉축 법어 및 메시지	7·8·9·10

B 특집 · 한국불교 포교합시다	1·2·3·5
문화 · 30대 불자 '문화 사업가'들이 뜬다	9
특집 · 봉축 화보	14·15
출판 · 부처님 전기를 읽읍시다	18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하얀 연등·만장... 연등회 슬픔 나누다

봉축위원회 4월 26일 종로 일대서 연등회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연등회 연등축제가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국민과 함께 나눴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10만여 하얀 연등과 장엄등이 서울 종로를 메웠고 시민들은 함께 희생자 애도와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6일 오후 7시부터 동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연등행렬을 진행했다. 매년 있던 화려한 오색연등과 흥겨운 울동, 노래 대신 올해는 연등행렬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등행렬은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색장엄등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적색 장엄등이 선두에 섰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자, 중앙승가대 학인 등 300여 명의 스님들이 백색 연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석가모니불 정

근으로 세월호 실종자들의 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뒤에는 하얀 만장 행렬이 이어졌다. 250여 만장에 쓰여진 '어른들이 미안하다' '보고싶다' '아이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등의 글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만장 뒤로는 사찰과 단체에서 나온 불자들이 행렬이 이어졌다. 이들 역시 백색 연등과 컵등을 들고 추모행렬에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를 의식해서 인지 연등행렬을 관람하러 온 시민과 불자들은 예년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참관한 시민들은 추모에 동참하며 합장으로 경건히 행렬을 맞았다. 다만 외국인 관람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동국대 운동장에서는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식전행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천수경 독경과 석가모니불 정근,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축원의식으로 거행됐으며, 이어진 법회에는 기원문, 발원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눴다.

백색 장엄등 · 10만 연등 행렬

사부대중 '석가모니불' 정근

동국대서 1만 대중 연등법회

"지혜 등불 밝혀 아픔 위로"

희향은 '국민 기원의 장'으로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등회 개최사를 통해 "한없이 여리고 애뜻은 생명들이 어둠에 갇혀 온 국민의 가슴과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아

픔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밝은 광명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서 모두가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이 깊은 자비를 베풀고 고통을 나누는 길이 연등 불빛 밝혀 비추는 그 길을 향해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기원문 낭독을 통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은 슬픔과 비통함, 분노를 넘어 저희들의 부끄러운 마음을 돌이켜 눈물짓게 한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엄마를 부르며 불쌍하게 죽게 만든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간절히 참회한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발원문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모두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이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불자들이 앞장 서겠다"고 서원했다.

이와 함께 연등행렬을 마친 불자

들은 종각역 사거리에서 회향한마당을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기원의 장'으로 전환해 개최했다. 기원의 장에서는 진명 스님이 사회를 맡았으며,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의식이 봉행됐다. 선정 스님은 "고운입아 정든입아 서글서글 웃는 입아"라고 시작하는 화정에서 "눈뜨고는 못보나니 눈감으면 만나리나, 세월호 희생자는 서방정도 왕생극락 하옵시길 빈다"고 말해 대중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대불연 활동가인 성신여대 박선연 양의 발원문도 낭송됐다. 박 양은 "그분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혀온다. 그러나 침몰해가는 배속에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모습을 보여준 살신성인을 기억하고 인간다움의 길을 배우겠다"며 "부모들의 가슴에 쌓인 원망과 분노, 억울함과 고통이 모두 씻겨나갈길 간절히 바란다.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 아이들이 밝은 세상에 태어나길 간절히 빈다"고 발원했다.

신성민 · 이나은 · 배현진 기자

불기2558년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총회의장	향적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